

휴대폰/IT부품산업

수요 회복과 산업 확장이 가져올 기회

Industry Comment | 2023. 03. 15

예상보다 빠른 IT 수요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하반기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되고 전장, XR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확장으로 IT업체들의 전반적인 수혜 기대되는 상황. 우려보다 업황 개선 기대감을 고려한 비중확대 권고

하반기 전반적인 IT기기 수요 개선 전망

스마트폰과 가전, TV 등 기존 주요 IT기기 수요는 기저효과 및 대기수요, 매크로 개선 등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장, XR 분야로 산업이 확장되며 모멘텀이 확대될 것. 전반적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세 고려했을 때 최근 주가하락 과도하다고 판단. 섹터 비중확대 권고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이미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기록 중. 3월부터 JD닷컴 등 중국의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 이벤트가 시작되었다는 점과 주요 중화권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확대된 점, 기저효과 등 고려했을 때 3월 판매량 양호할 것으로 기대

가전과 TV도 매크로 환경 개선과 기저효과, 부동산 거래량 회복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 매력적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하반기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전장, XR, AI 등 다양한 산업으로 IT 부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먼저 전장에서는 인포테인먼트와 전기차용 모터/인버터, MLCC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또한 Apple과 삼성전자가 빠르면 2~3분기 XR 제품을 공개하고 4분기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국내 밸류체인에 긍정적

관련해서는 대형주에서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의 수혜가 기대되고 중소형주에서는 PI첨단소재, 이녹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세코닉스를 선호

삼성전자, Qualcomm, Google XR 파트너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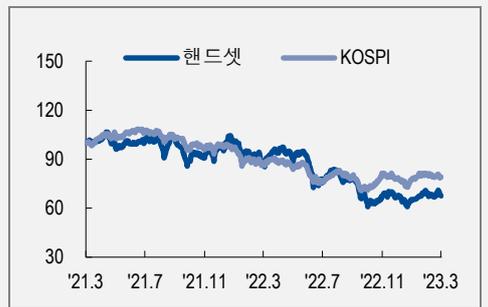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Positive (유지)

	PER(배)	PBR(배)
KOSPI	9.1	1.0
Sector	11.0	0.9

Sector Index



업종 시가총액 11,117십억원 (Market 비중 0.5%)
주: KRX업종 분류 기준



Analyst 이규하
02)768-7248, kyuha.lee@nhqv.com

종목 투자등급(Stock Ratings)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

1.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 Buy : 15% 초과
- Hold : -15% ~ 15%
- Sell : -15% 미만

2.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03월 10일 기준)

- 투자의견 분포

Buy	Hold	Sell
81.2%	18.8%	0.0%

-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